

# AI 시대 통역 교육에 대한 교수자들과 학습자들의 인식: 한영 전공을 중심으로

이지은(이화여자대학교)

최효은(이화여자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인공지능(이하 AI)이 각종 산업, 과학기술, 교육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통번역학계에서도 통번역 기술과 AI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다. 번역업계에 비해 통역업계의 기술적 전환은 늦게 시작되었지만 인간과 기계 협업이 통역 부문에도 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다. 통역 업무를 보조하는 기술과 용어 관리 시스템, 자동음성인식(ASR), 디지털 펜 등 컴퓨터 보조 통역(CAI) 툴의 도움을 받아 증강된 능력을 갖추고 통역하는 증강통역(augmented interpreting)은 통역사가 인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계가 보조적 역할을 하며 인간과 기계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개념이다(최문선, 2022, p. 140; Orlando et al., 2024, p. 48). 최근에는 CAI를 뛰어넘어 기계번역과 ASR 기술을 결합한 자막 번역 및 AI 음성까지 입힌 기계통역(machine interpreting)이 등장했다. 통역 주체가 인간 통역사 단독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 협업, 그리고 기계 단독까지 선택지가 넓어졌고, 통역 전달 방식도 통역사의 음성뿐 아니라 자막, AI 합성음성, 음성과 자막의 혼합 등 다양해졌다(최문선, 2025; Fantinuoli, 2022; Orlando et al., 2024).

기계통역은 원천언어 발화를 목표언어의 문자 또는 음성으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AI 통역, 음성번역, 자동통역, 동시 자막번역 등 여러 용어로 불리고 있다. 뢰히하커(Pöchhacker, 2024)는 통역의 정의상, 인간통역과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치는 기계번역 산출물을 기계통역으로 부르기보다는 ‘자동 음성번역’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통역 방식을 일컫는 용어는 중요한 문제지만 본 연구의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기계통역으로 칭하고 필요한 경우 원저자의 명칭을 따른다.

통번역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기존에 통번역이 시도되지 않았던 영역까지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새로운 역할과 다양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장애리, 2017, p. 202).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통역사들의 업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이주리에 외, 2025, p. 76). 기술의 발전으로 통역 업무의 경계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단순히 통역과 번역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 사용자에게 협력자, 조언자, 피드백 제공자 내지 언어 서비스를 총괄하는 관리감독자로서 통역사의 역할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최문선, 2025, p. 191). AI 시대 통번역사는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적합한 도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서비스 사용자의 위험을 관리하고, 목표 대상에 맞게 복잡한 통번역 기술 지형을 안내하는 역할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NAATI, 2025).

본 연구는 AI 시대 전문 통역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에서 출발했다. 대학은 통역 기술의 사용과 적합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기술과 협업하고 때로 경쟁해야 하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일할 인력을 준비시킬 책임이 있다(Defrancq, 2023). 통번역대학원 교수자로서 현재와 같은 기술 변혁기에 통역 교수자들과 학생들이 AI와 통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AI를 어떻게 실무와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AI 시대 통역 교육과 전공 및 직업 전망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졌는지 살펴봄으로써 교육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 2.1 통역 기술에 대한 인식 및 수용도

새로운 통역 기술은 사용법 습득이 필요하고 통역 수행 순간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사들이 이를 채택하는 속도는 대체로 더딘 편이다(이주리에 외, 2025, p. 54; 최문선, 2022, p. 136; Jin et al., 2024; Prandi, 2023).<sup>1)</sup> 2023년 초 통역사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연구(Lee et al., 2024)와 비슷한 시기인 국제회의 통역사 496명을 설문한 해외 연구(Fan, 2024)에 의하면 통역사들의 기술 활용도는 높은 편이 아니었다. 당시 통역사들은 대체로 기술이 제공하는 모빌리티와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지나친 기술 의존과 산만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이주리에 외, 2025; Fan, 2024). 약 2년 뒤 2025년 1월에 국내 통역사 1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주리에 외, 2025)에 의하면 통역사들은 AI 툴에 관심이 높았다. 이들은 통역 준비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AI 활용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무분별한 기계번역 수용 및 기밀 보호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며 통역사의 업무와 직업에 관해 불안감을 느꼈다.

선행연구에서는 AI와 통역에 대한 응답자의 성향 및 인식 차이 등이 확인되었다.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통역사들은 AI 시대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준비가 부족한 통역사일수록 불안감과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이주리에 외, 2025, p. 78). 82개국 2,543명이 참여한 대규모 설문조사(Pielmeier et al., 2024)에서도 AI 기술을 직접 경험해본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AI 기술을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AI 통역 적용에 대해서도 단순히 거부하기보다 기술의 적용점이 다를 수 있다는 인식 차이를 보였다(Pielmeier et al., 2024, pp. 275-276). 통역사의 통역 기술에 대한 수용도와 태도는 통역 경력, 교육 경험, 언어능력, 컴퓨터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언어 숙달도와 컴퓨터 능력이 높을

1) 실제 통역 상황에서는 여건이 안되거나 실시간 정보처리를 위한 인지 부하가 높기 때문에 기술 적용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최문선, 2022, p. 139; 2025, p. 172).

수록 통역 기술을 잘 활용하는 편으로 알려졌다(Orlando et al., 2024, p. 41).

기계통역에 대한 평가 연구도 진행 중이나, 인간통역과 기계통역에 대한 사용자 평가 연구는 AI 기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편이다. 배문정(2023)은 인간통역과 기계번역(파파고 AI에 음성을 입력해 제공),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자동번역자막까지 세 가지 서비스 방식에 대한 사용자 반응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AI 기술은 지금과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인간통역 품질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간통역, 기계통역, 자막번역 세 가지 전달 방식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비교한 흥미로운 연구다. 국제회의 통역 상황에서는 사용자들이 자막(37.5%), 인간통역(35%), AI통역(22.5%)의 순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인간통역보다 자막번역을 약간 더 선호했다(배문정, 2023, p. 600). 사용자의 영어 숙련도와 소통방식과 맥락이 선호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영어가 능숙한 통역 사용자는 직접 영어를 들을 수 있는 자막을 선호했고, 통역 의존도가 높은 사용자는 인간통역을 선호했다. 한편 일반 회사 업무 상황을 가정한 인하우스 통역 상황에서는 응답자 대다수(82.5%)가 인간통역을 선호했다(배문정, 2023, p. 602). 일상 업무에서 통역을 필요로 할 때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 감정 전달, 돌발 상황 대처 등 인간적인 요소를 중시한 것이다.

음성언어의 특징으로 인해 기계통역의 품질은 기계번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인간통역과도 차이가 있다(Orlando et al., 2024, p. 41). 인간통역과 기계통역(Azure Speech Translation) 결과물을 비교 평가한 판티누올리와 프란디(Fantinuoli & Prandi, 2021)에서는 기계통역이 정보 정확성에서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았고, 인간통역이 유창성과 언어 표현 등 소통 면에서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계는 인간처럼 복잡다단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언어적 다양성, 억양, 강세, 감정,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간의 의미, 문화, 은유, 모호성, 예측 불가능, 판단력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Ortiz & Cavallo, 2018, p. 24).

통역사에 대한 신뢰도 역시 대면통역이 원격통역보다 훨씬 높고 기계통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Pielmeier et al., 2024, p. 183). 따라서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복잡한 내용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 통역은

여전히 AI에 자리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Orlando et al., 2024, p. 41). 결국 통역 방식은 커뮤니케이션의 성격과 내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통역 시장에서는 비용, 품질, 사용 편의성을 비롯하여 통역 행사의 성격과 중요성, 청중의 인구학적 특성과 통역에 대한 의존도 등 매우 다양한 요소가 통역사 선택과 통역 방식 선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최문선, 2025, p. 190).

## 2.2 통역 기술과 교육

AI 시대에 필요한 통역능력과 교육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해보자면 인간 고유의 기술(human skill)이 핵심 능력으로 강조되었으며, 다양한 능력(versatile skill set)을 함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Orlando et al., 2024, p. 44). 통역사들이 가장 먼저 손꼽은 필요한 역량은 AI 도구 활용 능력과 연사의 스타일이나 주제의 전환 등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통역능력, 그리고 기술 변화 적응 능력과 윤리 능력과 문화적 이해력이다(이주리에 외, 2025, p. 75).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유연하고도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다(이주리에 외, 2025, p. 75). 무엇보다 통역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연사의 발화를 듣는 동시에 CAI 틀이 제시하는 시각 정보를 눈으로 읽고 처리하여 발화하는 ‘멀티모달’ 처리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기술적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통역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최문선, 2022, p. 157).

장애리(2025)는 AI 시대 인간통역사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통역역량을 강조하며 언어 능력과 비언어 능력, 대인 능력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는 원격통역 시대에 필요한 통역능력을 논한 장애리(2021)의 연구와도 맞닿아 있다. 장애리(2021, p. 222)는 원격통역 시대의 통역사에게 ‘적응적 전문성(adaptive expertise)’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기술능력뿐 아니라 스토리텔링 능력, 리서치 능력, 문제해결 능력, 권익수호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메시지와 맥락을 기반으로 불완전한 단서들을 통합하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인 스토리텔링, 리서치, 문제해결능력은 기술이 상수가 된 AI 시대에 더욱 필요하며, 원격

통역 환경에서 통역사의 건강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수호능력 역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장애리, 2021, p. 232).

원격통역, CAI, 자동통역을 통역 기술 교육의 주요 주제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업 설계와 교육 훈련 방안을 제안한 판티누올리와 프란디(2018)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자가 기술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각 기술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문선과 이주리에(2024)는 통번역 특화 기술뿐만 아니라 통번역 과정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범용 IT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통번역 작업 과정에 통합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기술 교육 사례를 논한다. 그밖에 생성형 AI를 통역 수업에 활용한 최신 연구(박미정, 2023; 진실희, 2024a, 2024b)는 챗GPT를 통역 수업 복습과 통역 훈련에 활용하거나 통역 교육을 위한 시나리오 작업 등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했다. 계속 진화하는 AI 툴을 통역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효과적인 통역 교수법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지만 아직 연구의 공백이 크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2025년 6월 중순부터 7월 초순까지 서울 소재 3개 통번역대학원 통역 교수 7명과 연구자 소속 대학원의 통역 전공 2학년 학생 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언어별 특성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연구자 전공언어인 한영 통역 교육으로 논의를 제한한다. 연구 참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가자 개인 성별이나 연령 정보는 제시하지 않는다. 교수 연령층은 30대부터 50대 초반까지이며 실무 경력은 적게는 8년부터 22년, 강의 경력은 3년부터 26년이다. 이 중 전임교원은 3명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수자 중에는 한국어와 영어 양방향을 모두 다루거나 한영 방향을 주로 담당하는 교수가 영한 방향보다 조금 더 많았다. 통역 학습자로 석사과정생 2학년을 제외한 것은 1학기를 마친 학습자보다 학습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의 연령대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이다.

교수 면접 조사는 연구 참가자의 기본 정보(실무 및 교육 경력, 실무 분

야와 가르치는 교과목 등), 체감하는 실무 현장의 변화와 AI 통역 경험 및 의견, AI 시대 통역 교육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학습자 면접에서는 AI 시대 통번역대학원 진학 동기, AI 활용, 전공 교육 및 직업 전망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반구조화 면접조사에 사용할 주요 질문을 사전에 참가자에게 송부해서 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 일정과 선호하는 면접 방식을 고려하여 일대일 또는 집단 대면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대면 면접의 경우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교수는 일대일과 다대일 면접 방식으로, 학생은 모두 1회 집단 면접으로 연구자와 만났다. 연구 참가자의 동의를 구하여 클로버노트를 이용해서 면접자료를 녹음하고, 녹음기록을 확인하며 면접 전사본을 수정했다. 면접조사에서 획득한 구술자료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으나 지면 제약과 가독성 이유로 필요한 경우 일부 내용을 편집하였다. 본 연구자료에서 통역 교수는 IT1~IT7, 학생은 IS1~IS6으로 익명화했다. 발췌자료에서 말줄임표(...)는 생략 표시이며, 원발화에 없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맥락상 생략된 내용은 괄호를 삽입했다.

## 4.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본 통역 교수와 학생 인식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 4.1 교수들의 인식

#### 4.1.1 통역 실무

##### (1) AI로 인한 시장의 변화

AI 통번역 기술의 발달로 인한 현장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개인차가 있었지만 대체로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변화를 크게 체감한다는 교수는 7명 중 1명뿐이었다. 이는 AI의 도입이 전반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나, 특정 영역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통역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부 회

의장에 기계통역이 제공되기 시작한 것이다.

교수 IT6은 자막번역이 제공될 상황임을 회의 직전에 통보를 받고 당황한 경험이 있었는데 다른 선배 통역사들이 거부하여 자막번역 제공이 무산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2명은 AI 통역 때문에 예정된 통역이 취소된 경험이 있었다. 교수 IT2의 경우, 예약된 행사 통역을 클라이언트 측에서 AI로 진행하겠다고 이틀간 일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가 첫날 기계를 통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2일차 통역을 다시 요청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교수들은 기계통역에 대해 경계심을 보이면서도, 그 품질이 낮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통역 갔을 때 자막동시번역도 올라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긴장되기는 했는데 그냥 통역하는 데 집중하니까 사실 별로 신경은 안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말도 안 되는 실수 같은 게 있어서 별로 나랑은 상관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IT2)

올해 원격회의에서 자막으로 자동번역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참고하는 듯하다가 그냥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거의 통역이 필요 없을 거라고 해서 앉아 있는 회의였는데 결국에는 중간에 그냥 통역해 달라고 했어요. 자막 때문에 통역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었지만...누가 봐도 좀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IT5)

다만 통역에 대해 잘 모르는 주변인이나 서비스 이용자들이 AI로 통역사가 대체될 것이라 믿거나 우려하는 반응을 최근 자주 접했다며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다. 일부 교수는 기계통역을 인간통역과 비교하기 위한 개발자 클라이언트 행사에 통역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교수 IT1은 기계가 통역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조롱 섞인 발언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이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통역 현장에 도입된 AI는 일률적 위협으로 인식되기보다 통역사의 역할, 경험, 태도에 따라 도전, 무관심, 불안, 동기부여 등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이제 뭐 너 밥 먹고 살겠냐, 다른 일 찾아야 되지 않냐 너무 단정적으

로 이렇게 계속 말한 건축과 교수도 있었어요. 그 동료가 나중에 저한테 사과할 정도로. 자기들도 CAD에 밀리는데 (웃음)...통역 하러 왔는데 새로운 프로그램 테스트한다고 제 통역한 거 자막 띄우는 건 기본일 정도로 제 통역과 결과물을 비교해요. 자기네 무슨 통역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테스트해 본다고. 저는 또 저대로 불러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한번 비교해 봐라. 비교하는 거 끝잖아 딱 이렇게 말하는 고객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더 보고 있다는 의식이 더 되니까 더 pause 없이 더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이런 약간 압박감이 있긴 있어요.(IT1)

이같이 매우 부정적인 경험을 한 교수는 1명뿐이었지만 시장 환경이 전과 달라지는 것은 분명하다. 요약하자면 과거에는 통역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이제는 기계번역 활용이 늘면서 통역 서비스 요청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통역이 아닌 언어 자문에 가까운 역할을 요청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통역사의 역할 변화를 느낀다는 반응이었다. 교수 IT7은 이러한 통역 시장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클라이언트들이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당연히 통역사한테 통역을 맡기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었다면 요즘은 실무자들이 챗GPT를 돌려서 미리 말씀 자료 같은 걸 번역을 시켜 놓고 직접 발표하기를 원하는데, 통역사한테는 여기서 어색한 걸 봐달라고 한다든지... 예전에는 모든 것을 다 통역을 해야 됐다면 요즘에는 이제 뭐가 안 되는 거나 중요한 거 위주로 선별적으로 통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역사 역할이 어떨 때는 어드바이저나 컨설턴트 같은 역할이 되는 것도 느껴요.(IT7)

이같이 통역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통역사들은 AI보다 우월해야 된다는 자극을 받는 한편 자기효능감은 낮아졌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1부터 10까지 모든 걸 통역사가 했는데 요즘에는 선별적으로 통역을 의뢰한다거나 번역 최종 감수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최종 단계에서의 역할로 몰려난 느낌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통역사가 해야 할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다. 다만 업무 난이도가 높아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

했다.

실무를 하다 보면 대체로 사람들이 영어는 어느 정도 다 할 줄 알아서 주로 저한테 시키는 게 한영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영어는 그래도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그게 자기네 전문 내용이니까 자기가 알아듣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 저한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 걸 봤을 때 아직도 저는 통역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IT1)

좀 사소한 일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임원들 이베일도 번역을 해주고 인사말 같은 것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더 전문적인 것만 어려운 것들만 하는 것 같아요.(IT7)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의 통역 서비스를 기대하는 클라이언트는 인간 통역사를 찾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한 통역사의 입지는 좁아지고 실력자만 남는 시장 재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AI가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켜, 실력이 부족한 통역사는 도태되고 뛰어난 통역사에게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약간 그레이 마켓이 걸러지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고결의 통역 결과물을 원하는 고객은 계속해서 사람을 찾는데 예전에는 비슷비슷하게 우리를 생각했다면은 웬만한 건 기계가 다 해주니까 고만고만한 사람이 약간 걸러지는 느낌. 전에는 통대 안 나오고 통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좀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감 자체가 절대적인 양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IT1)

AI의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비록 현 단계에서 품질은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 변화를 통해 통역 시장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통역사가 언어 자문 및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역할이 발전하고 있으며, 역량에 따른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통역 실무에서 사용하는 AI 기술

교수들은 통역 준비 단계에서 배경지식 학습과 용어 정리에 AI를 자주 활용했다. 특히 시간 제약이나 자료 부족 시, 주제 지식 준비와 통역 자료 초벌 번역, 또 표현 준비에 AI가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활용하는 AI 툴도 챗GPT뿐 아니라 퍼플렉시티, 구글 노트북 LM 등 다양했다. 다만 AI가 제시하는 용어나 주제지식은 반드시 확인하며, 특수 분야보다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된 일반 분야에서 AI 활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자료 받으면 퍼플렉시티로 용어 추출을 하는 편이에요. 한영 글로서리를 만들어 제가 더블 체크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어요. 자료가 공개되는 자료면 통으로 넣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제를 자세히 알려주고 “이 주제에서 내가 알아야 될 용어를 정리해서 알려줘.”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가끔 파워포인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걸 이미지로 캡처해가지고 설명해달라고 해서 주제지식을 준비해요.(IT5)

구글 노트북 LM 배경지식 공부에 되게 좋았어요. 많은 슬라이드를 받으면 흐름이 어떻게 될지 슬라이드만 봐가지고 잘 안 잡히는데 얘가 약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걸 들은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기 시작하면 내용 구분도 좀 더 잘 되고, 내가 슬라이드에서 못 보고 넘어갔던 것도 얘가 얘기해줄 때도 있어요. 음성으로 만들어주는 거 되게 괜찮았어요.(IT2)

저는 챗GPT를 쓰는데 어디서부터 공부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 자료도 없고 약간 갑자기 투입되거나 그런 경우에 쓰죠. “이런 이런 세팅에 이제 회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될지 기본적인 용어 알려주고 cheat sheet 알려줘.” 해서 그걸 토대로 공부를 시작하는 식으로...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방향 정도는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유용하다고 느끼는 거는 가끔 엔터나 OTT 쪽 행사를 갈 때가 있는데 캐릭터 설명이라든지 좀 캐주얼한 영어 준비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IT6)

본 연구에서 통역 수행 시 AI 툴을 활용하는 교수는 단 2명이었다. 주로 연사 발화를 전사시켜 STT가 필요할 경우에 참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산만

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번 시도해 보는 정도였고, 대부분의 교수는 직접 듣는 것을 훨씬 선호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TT 이것저것 해봤는데 실제 도움 받은 적은 정말 손에 꼽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나 이름 같은 거 한두 번 해서 살렸다 그럼 그 뒷부분을 못 들어요. 이거 본 순간 그냥 못 듣고 그렇기 때문에 trade-off가 계속 발생해서 몇 번 써보다 잘 되진 않더라고요. 제 파트너들한테 “이거를 보세요” 하면 다들 거부해요. 너무 신경 쓰이고 그냥 한 번에 들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그러더라고요.(IT2)

저는 트랜스크립트 시키는 거, 줌 동시에 할 때 자막 띄우는 기능을 한 다거나 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기계가 사람 귀로 캐치하기 힘든 것들은 캐치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IT4)

교수들은 대부분 AI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지만, 일부 교수는 이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학습 및 준비 방법이 편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들도 시간이 부족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하기는 했기 때문에 AI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다.

저는 되게 아날로그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종이로 보는 게 편하고, 기술을 사용해보면 실제로 잘 눈에 안 들어와요. GPT도 못 믿겠는 게 좀 있어요. 제가 일일이 찾아야 뭔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소스도 몇 번 다시 더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아직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하니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도도 엄청 높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거 필요한 것 같고요.(IT3)

교수들은 통역 준비 단계에서 배경지식 학습, 용어 정리, 초벌 번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시간 제약이나 자료 부족 상황에서 AI가 통역 업무 준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 도구로 유용하다고 보았다.

#### 4.1.2 AI 통역에 대한 의견

면접조사에 의하면 교수들은 AI 통역은 정확성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소통의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 품질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평가는 기계를 전문 통역사와 비교할 수 없다는 통역사들의 자신감에 기인한 것이나 흥미롭게도 다음 절에서 보겠지만 학생들도 기계통번역 결과물을 접할수록 인간의 우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AI 통역은 표면적 의미 전달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실제 소통의 즉시성과 맥락성을 살리거나 문화적 조율을 하는 데 여전히 취약하다고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은 한국어와 영어 간의 언어적 및 문화적 간극을 메우는 능력, 맥락에 따른 적절한 용어 사용 등에서 기계는 한계가 있으며, 그 결과 오류 및 소통 지연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AI가 대체할 수 없는 휴먼 옛지에 대한 교수들의 다양한 견해를 대변하는 답변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통역 분야에서는 분명 기계가 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정 회의를 가면 전문 용어가 아니라 그 회의에서만 서로 이해하는 용어를 써야지 서로 이해를 하는데 챗GPT를 돌리면 완전히 다른 용어가 나온단든지 그래서 다른 의미로 전달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저맥락 언어와 고맥락 언어인 한영 사이에서는 통역사가 좀 채워줘야 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없을 때 서로 오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딱딱하게 메시지를 받아들인다거나 하는 그런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간극도 기계번역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것 같고요.(IT7)

(AI가) 용어까지는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full sentence로 얘기를 잘 하면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계통역 시연을 보고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VIP 통역으로는 이걸 쓸 수 없다. 일단 지연이 너무 많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할 때는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고서는 몇 초 있다가 시작하는 거는 절대 할 수가 없다...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아직은 괜찮구나 생각했어요... 일단 사람은 필요한 인풋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알아서 공부를 해 오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파악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좀

유연하게 돌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AI 같은 경우는 모르면 아예 빼버리거나 이상한 말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좀 견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IT5)

교수들은 통역이 단순히 언어 메시지 전달이 아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통역사가 필요하고, 통역사가 전달하는 상황이 훨씬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점이 있음을 자신 있게 말했다.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꼭 영어를 못해서라기보다도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순차 통역을 쓴다고. 통역사가 나보다는 영어를 조금 더 잘 할 거니까 쓰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통역사를 거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사회학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체면 유지가 문제가 돼서 기술 사용이 항상 원활한 것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IT2)

통역사는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전환하는 식으로 통역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해해가지고 저쪽에 알아듣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계가 하기가 좀 힘들고, 퍼포먼스 같이 전달하는 말투, 표정, 목소리 톤, 남자인지 여자인지, 손짓발짓 이게 다 커뮤니케이션이라서 그런게 패키지로 잘 전달이 되는 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역사가 필요한데 앞으로 기계 대 사람이면은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을 선택하겠죠.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한다 해도 쓸까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안 쓸 거 같아요.(IT4)

교수 IT4는 회의장 보조 스크린과 개인 휴대폰으로 자막번역이 제공되는 학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경험을 나누며 청중과 소통이 매우 미흡했다고 말했다. 학회 진행 언어인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발표한 경우 Q&A나 즉흥 발언이 이뤄질 때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기계적으로 문장 대 문장으로 옮기면서 부정확하고 부자연스러운 번역이 되면서 서비스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아 통역 서비스와 전혀 다르다고 평했다.

일단 자연어니까 좀 안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한참 보면 맞는 잘 된 번역이기는 하지만 눈에 안 들어왔어요 솔직히. 원문이 되게 길었는데 영어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가 주어 동사가 어디 있는지 모든 정보를 조사 하나까지 다 번역을 해가지고 눈에 안 들어오는데, 통역사는 그렇게 안 하고 탁탁탁 알아듣고 통역하고 그러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통역했기 때문에 청자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요. 근데 기계는 청크가 없고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청자들한테 참 가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외국인들은 연사가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자막을 안 보더라도요. 자기 핸드폰도 안 보고 그냥 PPT 띄어놓은 거 영어로 써놨으니까 그냥 그거 보고 대충 때려맞추면서 듣더라고요. 약간 친절하지 않다 싶었어요. TTS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기계음이기니까. 기계 목소리가 아무리 잘 한들 피곤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청자가 소외되는 게 있고 Q&A가 스크린에 떠도 한눈에 안 들어와 바로바로 소통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통역사면 중간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어서. 기계로 그냥 저렇게 하려는 공급자 마인드지 정말 소통을 시키는 그런 서비스는 전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IT4)

더 나아가 IT4는 기계와 협업하는 통역사를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비행기 조종사에 비유하며 앞으로 고급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통역사 역할을 기대했다.

비행기 조종사가 이착륙 때만 하고 위기 순간에만 한다고 조종사가 아닌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위기 순간에 꼭 필요하니까... 그런 모드로 가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기계가 어찌고 저찌고 해도 다들 얘기하시는 게 검수가 필요하잖아요. 통역도 마찬가지로 기계가 이런 저런 부분에서 잘못하니까 (사람이) 개입해서 한다거나 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통역을 다 하는 시절이 있었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그런 오토파일럿 모드로 통역을 하는 날이 오면 우리 노동력도 좀 절감하면서 벨류를 전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IT4)

AI 통역의 도입은 단순한 언어 전달 기능에서는 일정 부분 대체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확성 부족, 맥락과 문화적 차이의 미반영, 발화 지연 등으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통역이 단순한 의미 전달이 아니라 맥락 조율, 사회적 심리적 중재, 비언어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영역은 기계가 대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실제로 자동 자막이나 기계번역은 청중에게 피로감을 주고 소통을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비용 절감 논리에 치우친 서비스 제공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통역사의 역할은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소통 전문가, 품질 검사자, 문화적 조정자, 위기 상황에서의 고급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재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계 중심의 저가 서비스와 인간 중심의 프리미엄 서비스로 시장이 양분되는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4.1.3 AI 시대 통역 교육

AI 시대 통역능력, 통역 교육목표와 방향성, AI 활용 통역 교육과 교수 경험 등에 대한 교수 의견을 종합하면 적어도 현재로서는 기존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1) AI 시대 통역능력

교수들은 AI 시대에 휴먼 애틀지를 장착한 통역사로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통역 기본기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맥락에 맞는 의미를 전달하는 통역능력 외에 AI 리터러시와 프로페셔널리즘(직업윤리)이 핵심 역량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교수들이 중시하는 이런 능력 배양은 전문 통역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역사로 활동하는 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접목되면 당연히 더 좋은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좋았던 거는 우리 직업 윤리에 대해서 수업해주신 내용 되게 좋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IT3)

기본기가 결국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기계번역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한계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좀 잘 다뤄야 되는 것 같고요. 용어 관리 능력, AI 협업 능력, 포스트에디팅 능력,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 이런 것도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챗GPT에 클라이언트의 자료를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야겠다부터 시작해서 윤리 의식이나 이런 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IT7)

저는 통역사에게 필요한 역량에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역사는 번역사와는 달리 대인 기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빠짐없이 통역 잘 하라고만 교육을 하다 보면은 진짜 그게 다인 줄 아는데 통역하러 갔을 때는 그 외의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런 역량도 강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계와 차별되는 거죠... TPO를 가려가면서 어떤 식으로 임할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IT2)

통역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려면 기계랑 뭔가 차별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통역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AI 시대에 마지막까지 어떤 게 대체가 안 될까를 생각을 해 보면 쌍방의 소통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특정 이해 관계로 모여 가지고 각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보안도 중요한 그런 미팅인데 그런 데서 다이내믹에 대한 이해와 눈치와 센스, 판단력 이런 게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IT6)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통역 그런 역량이 좀 더 필요하고, 순차통역을 한다면 사람들 간에 입장 같은 거 잘 캐치하고 행간을 잘 읽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기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활용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계속 찾아보는 능력, 기술은 계속 바뀌니까 어떤 기술을 알아야 한다가 아니라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IT4)

통역능력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증강통역에 대해 교수들은 오

히려 통역 기본기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증강통역이 멀티태스킹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역 수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 활용에 적극적인 교수들마저 기술에 의지해서 통역을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생각을 보였다.

통역이 약간 우리는 퍼포밍 아트 같은 그런 느낌이라 몸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리로. 정말 체화가 되지 않은 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체화를 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이나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가 필요한 거고. AI는 뭐 약간 효율을 높이는 것. 보면 볼수록 augmented interpreter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인지 능력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쉽지 않아요.(IT2)

augmented interpreter라고 하는데 augmented가 아니라 더 멀티를 해야 돼요. 내가 augmented 되는 게 아니라 나를 augment 시켜야 돼요.(웃음)(IT4)

AI 시대에도 통역사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한 언어 변환 능력이 아니라 맥락을 읽고 상황을 중재하는 인간 고유의 역량에 있음을 교수들은 강조하였다. 통역 기본기는 변함없이 중요한 토대이며, 발화의 의도나 청중의 반응, 상황 등을 고려해 의미를 재구성하고 적절히 전달하는 능력이야말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지목되었다.

## (2) AI 시대 통역 교육의 목표와 방향성

면접에 참여한 교수들 사이에는 AI 시대 통역 교육 목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보다 더 현장 적응력을 잘 갖추고 업무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분명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일부 교수들은 전문 통역사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전문화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저는 달라졌다고 보진 않고 오히려 더 완벽하고 무결점을 요구하게끔 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교육의 성격 자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IT1)

대학원 수업이 실무에 완전 100% 최적화됐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실무를 반영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를 켜놓고 통역을 한다거나 통역할 때 약간의 AI 활용을 가미한다거나 그런 건 있겠지만 그냥 뭐 목표나 능력까지 바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IT5)

통대는 가장 우수한 언어 인재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언어 분야의 궁극의 전문가 그거는 바뀌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지는 모두의 숙제인 것 같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자리는 지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하이엔드 통역 시장은 남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별로 특화를 한다든지 뭔가 각자의 어떤 포지셔닝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IT7)

또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실무현장을 고려한 통역 교육의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사실 현장에 맞춰서 우리가 항상 교육을 해오는 거잖아요. 근데 현장이 요즘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은 재빨리 우리도 도입해야 돼요... 약간 현장의 세팅들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 익숙해지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시대가 됐건 간에 그 시대에 맞는 것들을 도입하면 되는 거니까 (IT4)

실무현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직업 윤리와 통역 맥락 환경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로서 자질이 포함된다. 그래서 사회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모두 통역을 더욱 잘 해내기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면서 학생들이 통역을 텍스트로만 대하지 않고 현장감 있는 통역을 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각자 교과목 특성에 맞게 이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수들은 나름대로 시도를 하고 있었다. 실제 연설 영상을 사용하거나 통역 내용의 난이도를 높인다든가 정돈되지 않은 구어 발화를 통역하도록 원천 텍스트를 일부러 편집하기도 하며 현장감을 가미하면서 수업용 텍스트의

변화를 꾀했다. 통역 피드백에 관해서도 교수가 직접 통역해보고 코멘트를 해주거나 시연하는 등 통역 수업에 더욱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통역 과정에 대한 의식 제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또 실습 기회도 성찰적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의 역동성을 좀 느끼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체험하면 동기부여나 학습 분위기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어떤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퍼포먼스가 끝난 다음에 뭐를 잘했다 잘못했다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조금 더 스텝 바이 스텝 가르쳐주는 부분이 지금보다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IT7)

교수들은 전문 통역사를 키워내야 하는 교육의 필요성은 명확한 데 비해 평균적인 학생들의 기본기를 포함한 학업능력, 학습태도, 목표의식 등이 약한 것을 우려했다. 이는 실력을 갖추지 못한 졸업생은 AI 시대에 통역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인식과 맞닿아 있다. 효과적인 교수법 개발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했지만 한편으로는 수업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학습동기나 노력이 부족하거나 개선이 미진한 학생들에 대해선 묘책이 없어 보인다고 고민스러워했다.

근데 통역은 성찰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같아요. 내가 통역한 거 들어보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다음 통역할 때는 또 안 되고... 자기 통역 안 들어보는 애들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수업 시간에 자기가 통역하면서도 녹음 안 하더라고요 몇 번 얘기해도 까먹고 그냥 안 해요.(IT2)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 같고 지금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입시 설명회 같은 데 와서 질문하면은 “이제 AI가 대체하지 않을까요?” 이러는데 왜 근데 저런 의문을 가지면서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 하지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걸 하면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있어 보이고 남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걸로 보는 것 같은 게 제가 슬픈 포인트예요.(IT1)

약간 전반적으로 조금 게을리진다라고 해야 하나... 이 텍스트를 얼마만큼까지 분석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소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좀 낮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셀프 크리틱 과제를 봐도 뭔가 본인 퍼포먼스에 쉽게 만족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강화를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IT6)

또한 AI로 인해 수업에 임하는 자세나 학습태도가 부진한 측면에 대해서도 우려하기도 했으며,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스스로 개발하도록 기대하기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아직 수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느낀 점은 없는데 약간의 우려 사항이라면 학생들이 AI를 얼마나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느낌상 배경지식 같은 거 연사 브리핑하는 것만 들어봐도 숙지된 것 같지 않다는 인상도 받기는 하거든요. 배경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줬더라도 그걸 소화라도 좀 하고 와야 하는데...어떤 식으로 그런 정신 자세나 태도를 트레이닝을 시켜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칫하면 게을리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저는 좀 있어요.(IT6)

통역의 경계가 확장되는 한편 전문 직업인으로서 프로페셔널리즘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할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전통적인 통번역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경력 계발을 위해 사회나 발표 능력을 배울 기회를 열어주는 것과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고객을 대하는 정신자세와 태도와 관련된 교육도 거론되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 MC라든지 그런 분야도 저희랑 역량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위 역량 중에 보면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라든지 전달력이라든지 주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요약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떤 언어와 관련된 어떤 전문 분야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장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통번역을 기본으로 하되 조금 피버팅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재들이 그걸 제일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IT7)

통역이 서비스 업종이라고 학생들이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서비스 마인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요율을 받는 건 당연하긴 한데 그걸 당당하게 요구하려면 고객에 대한 기밀도 잘 유지해야 될 것이고 서비스 정신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가르쳐줘야 될 것 같고... 대학원생인데 가끔 이메일 받다 보면 황당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나 싶은 걸 제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IT1)

아래 교수 IT7의 말과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한 마인드와 함께 업계 생태계의 변화에 대비하고 또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주제 지식 플러스 AI 리터러시 그리고 약간은 유연한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배운 어떤 방식이나 통번역이 어떻게 되어야 한나라는 것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수요를 살펴보고 필요한 거를 우리가 서비스 하위역량과 기술들을 연결해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요율부터 시작해서 생태계 자체, 산업을 다시 처음부터 만드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 간에 또는 전문가들 사이에 그런 논의가 앞으로 필요합니다.(IT7)

교수들은 AI 시대에도 통역 교육의 목표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학생들이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통역 교육이 단순히 언어 기술을 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환경을 반영한 교육, 성찰적 학습, 태도 및 사회성, 윤리 교육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 (3) 통역 교육에서 AI 기술 활용

본 연구에 참여한 교수들은 수업 준비에 AI를 활용했다. 통역할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조정과 편집, 그리고 스크립트나 시나리오 생성 작업에서 AI를 일부 활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AI를 적극 활용하지는 않았다. 학생들에게는 수업 후 리뷰를 위한 전사나 혼자 연습할 때 AI를 사용

할 것을 제안하는 정도였다.

저는 텍스트 준비할 때 에디팅이나 수정할 때 왜냐하면 약간 구어화를 해야 되니까 할 때 챗지피티한테 시켜서 “paraphrase 해.”라고 해서 수업 자료 준비할 때 활용하는 것 같아요.(IT2)

다양한 상황을 연습할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콘텐츠 생성시키고 현장 상황에 맞춰서 수정을 하고 프롬프팅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해서 수업 자료로 써요. 수업 방식 면에서 조금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거나 할 때 준비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주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IT7)

4학기쯤 가면은 줌에 자막이 띄워졌을 때 굉장히 헛갈리고 멀티태스킹이 더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걸 훈련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해보기도 하고 원격 통역 자체를 실행해 보는 것도 하고 기술을 좀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Q&A 세션 통역 연습시킬 때 챗GPT로 질문을 생성시킨다든가 써봤던 것 같아요.(IT4).

영상 자료 할 때 STT로 전사 스크립트를 따서 그거 가지고 교수 크리틱 할 때 활용한다든가 AI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 소개했어요. 연습할 때 이런 거를 사용해 보라고 (IT3)

AI가 오역 이런 거는 잘 캐치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오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여서... 평가에서는 아직까지 신뢰하기 어려워요.... 항상 고민인 게 영어가 많이 틀리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처음에는 일일이 말을 해주다가 본인도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나도 말하기 구차하고 그래도 영어는 고쳐야 하는 거니까 일대일로 얘기할 때 AI한테 피드백 좀 받아라고 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교수로서 해도 되는 말인가 AI로 좀 돌려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인가 싶어서 망설일 때가 있어요.(IT5)

통역 수업에서 AI 활용에 대해 어떤 지침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통역 수업 시간에 어휘나 표현 검색용으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수준이고 AI 사

용을 금한 수업도 있어서 아직 통역 교실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교수는 통역 퍼포먼스에 대한 AI 피드백을 참고할 만하다고 보았으나, AI의 신뢰성이나 교육적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여 AI 활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아직 교육에서 AI 활용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허용 기준이나 확립된 관행이 부재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통역 수업에서는 지침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수업 중에는 AI 사용 금지하지만 핸드폰 검색은 예전부터 학생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강세 같은 거 확인하거나 그런 것도 쓰는 것 같고 예습 복습에는 적극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굳이 용도를 정해주기보다 학생들이 오히려 더 좀 잘 찾아가는 것 같아요. (IT7)

AI로 인한 통역능력이 향상되거나 저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AI 음성인식 기술로 통역 전사본을 토대로 자기 평가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표현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AI를 쓴다고 해서 학생의 통역이 크게 좋아지거나 나빠진다고는 그거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IT5)

저는 AI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전사하고 자기 평가를 좀 많이 시키고 싶어요. 원문 대비하는 부분 말고 표현 같은 것들 고민을 할 수가 있으니까.(IT7)

교수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현재 통역 교육에서 AI는 수업 준비를 보조하는 도구로 주로 활용되고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교수자 측면에서는 AI를 활용해 원천 텍스트를 편집하거나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등 수업 준비의 효율성 확대와 학습 콘텐츠 다양화에 기여했지만, 실제 수업에는 여전히 교육적 적절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교수들은 STT 기반 전사나 자기평가 도구 등에서 품질 인식과 표현력 향상에 긍정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어, 향후

통역 수업에서 AI가 자기 평가나 자율 학습 보조 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 (4) AI 기술 교육

AI 기술 교육 방식에 대해 교수들은 전체 공통 수업에서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교과목 수업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소개하는 것을 병행하는 방식을 지지했다. 기본기를 가르치는 통역 수업에 리터러시 윤리를 포함해서 교육하면 충분하고 교수보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세대에게 별도 기술 교육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수들은 모두 학생들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AI 사용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시장 통계라든지 시장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테크놀로지들이 왜 쓰이고 어떻게 쓰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통번역사들이 역량을 확장할 수 있고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어느 정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효용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고요... AI의 한계, 좀 많이 사용해 봐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AI가 다루지 못하는지 알고 그다음에 윤리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떤 한계와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학생들이 오히려 너무 AI에 의존해서 디스킬링돼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량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못 지키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 그게 사실 더 두렵습니다.(IT7)

AI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되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통역을 나갈 때는 이 정도는 공부를 좀 하고 가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도 같이 알려줄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IT6)

연사 할 때 배경 지식 조사를 요즘은 다 챗GPT를 돌려서 그걸 가지고 오는데 확인 잘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오고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읽고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런 거는 가르쳐야 되고 그게 AI 리터러시 같기는 해요. 어떤 용도에서 어떻게

써야 되고 그 용도에서 뭐를 썼을 때 주의할 내용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거는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IT2)

AI 시대의 통역 교육은 단순히 기술 사용법을 익히는 차원을 넘어 시장  
수요와 윤리적 기준을 반영한 이해 중심의 교육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해 기존 역량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제 지  
식, AI 리터러시, 유연한 사고를 균형 있게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이는 개별 교육과정을 넘어 요율 구조, 서비스 모델, 역할 분화 등 통번역  
시장 전반을 재편하는 생태계 재구성의 과제로 이어지며, 학계와 산업, 전문  
가 집단의 협력적 논의가 요구된다.

## 4.2 학생들의 인식

### 4.2.1 학업 동기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언어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커리어를 찾  
기 위해 통역을 전공하기로 선택했다. 사회 경험 없이 입학한 한 학생을 제  
외하면 다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 입학 준비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통역  
사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도 이유로  
작용했을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  
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사실 통역사라는 직업이 뭔가 그냥 어디 마음속 깊숙이 있는 약  
간 하나의 패 같은 거였거든요. 제가 쓸 수 있는 패가 아니라 한번 도  
전해 보고 싶다 이런 꿈 같은 거였는데 인생에서 좀 도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도전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IS2)

언어를 배우는 건 좋아하지만 다양하게 배우는 걸 선호하는 편이어서  
제가 입학시험을 쳐야겠다 생각을 한 건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조금  
씩 누적이 되면서 흥미가 생겼어요. 어릴 적부터 국제회의가 열리는 장  
소 근처에 살다보니 뭔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 곳에 어떻게 하면  
나도 들어갈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통역사가 그런 모든 곳에  
다 갈 수 있는 직업이고 할 줄 아는 언어가 있으니까 통역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IS1)

저는 언어를 가지고 풀타임 잡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안 했거든요. 뭔가 다른 스킬을 갖춰야지 언어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통역사란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거 하면은 내가 언어 스킬 가지고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겠구나 싶어 가지고 그런 기대로 왔어요.(IS4)

진학 시점에서 AI를 크게 의식하지 않은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AI를 의식했고, 진학을 결정하기 전 주변 의견을 구해가며 각자 나름대로 손익계산을 해보았다고 했다. 주변의 만류도 없지 않았지만 꿈을 좇아 대학원을 선택했다고 답한 대목에서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현재 전공 공부가 힘들지만 학생들은 모두 통역 교육 경험과 훈련에 만족하고 있고, 통역 기술 훈련으로 배우는 지식이 매우 값진 경험이기 때문에 설사 통역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유용한 교육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 점이다.

저도 들어올 때 AI가 많이 고민이 됐죠...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기술의 존재와 이걸 implement 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그 과정에서 뭔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쪽으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고위 관계자를 도와야 하거나 기업에서 소통을 돕는 거는 단순히 기계 돌려 가지고 100% 대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좋아하면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IS4)

제가 딱 공부할 때쯤에 ChatGPT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충격적이고 다 대체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불안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거의 모든 직업이 다 AI 때문에 많이 변하게 될 거라서 여기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연사들도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분들도 많고 (통역은) 번역같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고 통역을 하는 거니까 사람이 치고 빠지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대체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들었습니다.(IS3)

저는 통대도 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느끼는 게 들어와보니까 정말 세상은 넓고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더닝 크루거 곡선에서 진짜 최하점을 한번 찍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넓은 세계가 있었구나를 인지하면서 배워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설령 대체될지언정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거는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IS5)

저도 약간 risk-taking을 하고 오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통역사 못하게 되더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되게 플러스인 커뮤니케이션과 리스닝, 들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거를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해서 만에 하나 AI가 대체하더라도 쓸모없는 일이진 않은 것 같아요.(IS6)

학생들은 AI가 모든 상황을 대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설령 통역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얻는 언어능력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다른 분야에서도 자산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학생들의 답변은 통역 교육이 특정 직업 양성을 넘어 AI 시대에 통용되는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 훈련의 장으로 기능한다는 교수들의 의견과 일치한다.

#### 4.2.2 AI 사용 및 품질에 대한 인식

학생들은 대체로 AI를 어느 정도 학습에 활용하고 있었고 AI 도구 가운데 챗GPT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AI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은 한 명뿐이었는데 AI의 환각으로 인해 확인이 필요하고, 문서작업 시 스타일 편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유에서였다. 학생들은 AI를 주로 주제지식 검색이나 영어 표현 학습에 활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통번역에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번역투 문제가 있어 활용을 꺼렸다. 하지만 한 학생은 자신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AI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2학년이 되고 나서는 ChatGPT를 주로 쓰고 있는데 “좀 바쁘니까 수업 때 이러이러한 주제가 나온다. 수업 준비 도와줘.” 이러면 간단한 이계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고 또 “중요한 표현을 이중언어로 표를 만들어서 나한테 제공해줘.” 이렇게 시키거든요. 또 “영어 동사 중요한 거 몇 가지 알려줘.” 이렇게 하고 “예시 옆에 써줘.” 이런 다음에 그걸 한

번 보고 수업 준비를 시작할 때 도움을 받는 편이에요. 너무 바쁘면 그것만 보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ChatGPT나 AI의 단점이 제가 애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IS2)

저도 통역에는 AI 안 쓰는 것 같아요. 연습은 사람이랑 해도 하기 싫은데 그걸 하려면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대신에 대안 찾을 때 써요... 기계가 번역을 해주면 아무래도 고치는 게 끝이지 뭔가에 다른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문장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워낙 접근 방식이 많은데 기계가 뭔가를 제안하면 훨씬 다양하게 말고도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IS6)

AI와 거의 한몸이에요.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영어를 내가 항상 알려줘야 된다 해서 더 쉽고 진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영어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도 수업 통역 수업 시간 전에 배경 지식 공부할 때 “주제가 이거다. 알아야 될 모든 배경과 모든 단어를 말해줘.” 그리고 AI가 이렇게 말해주면 “진짜 맞아?” 이렇게 확인해서 위우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제가 한 거를 “틀린 걸 다 잡아내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했어?” 이런 대화를 개량 하면서 공부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IS3)

학생들이 AI를 사용하면서 윤리 측면과 과잉 의존의 폐해에 대해 높은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안 써야 되는데 쓰지 말라 했는데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IS3)

AI 쓰는 게 환경에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스터디를 봤는데 AI를 쓰면 진짜 지능이 확 낮아진대요. 정답을 제시해 주니까 뭔가 그거에 중독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인지하는 하고 있고요. 번역을 할 때는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긴 했어요.(IS5)

진짜 많이 고민이 되는 거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물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기타 등등 그런 것 때문에 또 한마디 할

것도 이걸 내가 하자 이렇게 그냥 할 때도 있고... 도대체 허락 받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AI 학습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제 통역한 것을 올릴 때 좀 주저하게 돼요... 최근에 스터디 자료랑 책에서도 읽은 건데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는 데 저임금 노동자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제3국 사람들을 착취하는 형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혹시 제국주의에 가담하는 건 아니지 이라고 과학자라고 생각하고 안 쓸 때도 있어요.(IS2)

저는 사실 많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윤리 측면에서는 별로 생각 없이 썼는데 번역 수업에는 당연히 AI를 안 썼지만 일하면 무조건 쓰게 될 것 같거든요. 초벌이라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근데 그때 당연히 이렇게 개인정보나 다 빼야 될 것 같고 개인정보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IS6)

학생들은 기계번역의 한국어 결과물의 품질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직접 사용해 보면서 AI 통번역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자신들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기계보다 인간이 나은 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다 직역을 많이 해서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자기 멋대로... 오류를 뻔뻔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아직은 좀 멀었구나 느꼈어요... 반대로 저도 그래서 제가 번역하거나 통역할 때 직역할까 봐 그런 데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IS2)

통역이 사실은 원래는 연사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긴 하지만 통역사의 판단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그 판단을 AI는 못하니까 일단 문제인 것 같고 연사가 말을 정말 사실 완벽하게 잘하면 AI도 꽤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구어란 일단은 이상하고 저희가 들었을 때도 무슨 말인지 약간 추측을 해서 말이 되는 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AI는) 진짜 못 하잖아요... 99% 정확하더라도 2%, 1% 오류의 가능성 절대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업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웬만하면 잘 하는데 가끔씩 숫자나, 플러스를 마이너스라고 한다거나 긍정을 부정하는 거 같은 크리티컬한 에러가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국은 (사람이) 쪽 한 번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IS6)

특히 동시 자막번역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 IS5는 기계와 인간의 간극을 더 크게 실감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회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청중의 비율이 높다면 아직까지는 AI 통역만으로 행사를 진행하기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IS5)

학생들의 경험은 AI가 학습 보조 도구로는 일정한 효용이 있지만, 직접적인 통번역 훈련이나 실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학생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AI에 크게 의존했으나, 대다수는 번역투와 오류, 맥락 파악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인간 통역사의 우위가 분명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 문제, 데이터 노동 등 윤리적 차원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드러내며, AI 활용을 둘러싼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AI 시대에도 통역사의 고유한 역할과 전문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AI 의존으로 인한 역량 약화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4.2.3 AI 시대 통역 교육

학생들은 어떠한 통역능력이 필요한지 의견을 밝혔는데 모국어가 한국어임에도 학생 전원이 한국어 구사력 향상을 희망한 사실이 흥미롭다. 전문 통역 교육을 받으면서 이중언어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기계와의 차별성도 탁월한 언어능력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절감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진짜 언어 실력이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언어 자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빛날 수 있지 않나, 진짜 옥석을 가리는 안목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한국어를 한국어답게 쓰는 능력이 더 크리티컬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이미 번역투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됐고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거를 의식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도 통번역사한테 조금 더 맞춰지면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IS4)

전문 통역 교육에서 현장 연계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현장감을 줄 수 있는 통역 수업이 존재하지만 학생들은 더 많은 실전경험을 통한 배움을 기대했다.

모의로 연습한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스터디 하는 것처럼 한다고 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작게나마 실수를 여러 번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전으로 해보면 부족한 부분을 빨리 캐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IS2)

통역 실습을 몇 번 갔다 오면서 통역능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센스와 성격도 진짜 큰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몸소 터득했던 것 같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라포 형성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IS5)

그러나 모든 학생이 실습 기회 확대를 원한 것은 아니다. 어차피 실력을 쌓기도 빠르고 실무를 하게 되면 그때 배울 기회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업인 학업에 충실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학교에서 배워도 실무에서 배우는 것도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영어랑 메인 커버하기에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습 많이 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선택지가 있는 건 좋지만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거에 충실한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IS6)

학생들은 또한 통역 업무 확장 맥락에서 통역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행사 진행이라든가 화술 훈련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노트만 보고 막 얘기를 한다거나 말이 나오는 데만 급급해서 사실 들어보면 현장에서 들어보면 너무 어색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청중에게 전달력 있게 호소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IS2)

학생들도 기본기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수업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지만 기본기 훈련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지금 대학원 교육이 충분히 잘 되고 있어 달리 바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답변은 통역 교육을 통해 언어적 정교함과 현장성을 균형 있게 함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 4.2.4 진로와 전망

학생들은 AI 기술의 위협을 인식하지만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진학했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하지는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통역에 관심이 있지만 직업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번역대학원을 권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성이 중요하다며 직업의 장단점에 대한 알고 통번역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답하여 꿈과 현실의 균형감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현재에 충실하게 소신껏 살고 싶은 MZ세대다운 반응으로 보였다.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시나요? 통대 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전 좀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면 가면 된다고 본인의 전망을 본인이 만들어 가는 건데... 언어를 좋아하는 건 진짜 베이스 같고 인하우스, 프리랜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변 선배 통역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통역의 장점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저와 비슷한 사람에게는 추천할 것 같아요. 적성이 진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IS5)

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살짝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행사 같은 거 보면은 밑에 자막으로 뭐를 사용하여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그럼 일자리가 하나 없어진 건가 이런 불안한 생각도 들고 사실 이거를 지금은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보고 'AI가 대체할 거니까 넌 헛시간을 들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를 커트하고 '그럴 거면 너는 그걸 써라 그러면 대체 되지'하면서 넘기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심지를 끈게 갖고 가는

게 전망이 밝은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IS2)

저는 일단 졸업을 하면 아마 인하우스 통역으로 들어가겠거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졸업 직후 미래인 거지 그제 제 10년 뒤나 제 20년 뒤는 아닌 거잖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또 있고 그래서 뭘 할지 모르는 일이에요.(IS1)

## 5.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전문 통역 교육기관은 AI 시대에 기술 발전과 업계 동향에 발맞추어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교육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를 위해 석사과정 한영 통역 전공 교수 7명과 학생 6명을 대상으로 AI 기술과 통역 실무 및 통역 교육에 대한 인식을 면접조사했다. 그동안 기계통역과 관련된 연구는 통역사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위주로 이루어졌고, 기계번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고 교육 연구는 더더욱 미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통역 교수 겸 통역사로 활동하는 교수자들과 학습자들의 목소리들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풍부한 구술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수자들은 개인적으로는 기술이 통역 업무에 미치는 큰 변화를 체감하지는 않았지만, 거시적인 시장 환경의 변화는 분명히 인지하며 이러한 기술적 전환에 따라 통역 교육에서도 기술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렇지만 전문 통역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보다 통역능력이며, 그 위에 기술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학원 통역 전공 교육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AI 시대에 학생들이 휴먼 엡지를 갖춘 소통 전문가이자 언어 전문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교수자들은 학생들이 기본기 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학습동기가 다양

해지고 목표의식이 다소 약화된 듯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연구 참가 교수들은 통역 실무와 교육에 AI를 일부 활용하고 있었고, AI 리터러시를 포함한 적절한 기술 교육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AI 시대에 필요한 통역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법에 대해 고민하면서 수업 자료 준비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통역 수업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장려하지는 않았다.

한편,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에 통역 학습자들은 기술의 영향을 인식하면서도 언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의 매력에 끌려 통역 교육을 받기로 결정하고 도전했다. 이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통역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매우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여겼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기계통번역의 품질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휴먼 엣지를 실감하였고,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고 자신들에게 고유한 역할이 남아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학생들은 일정 수준의 AI 리터러시를 갖추고 AI 툴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학습에 필요한 AI를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교수들이 기대하는 대로 AI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통번역능력, 특히 표현력 향상을 목표로 AI를 활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AI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기대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갖추고 있었다.

본 연구는 AI 시대 전문 통역 교육이 직면한 현실을 교육의 양 축을 이루는 교수자와 학생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술의 발전이 전문 통역 교육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조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언어능력과 같은 기본기는 기술의 진보 속에서도 변함없는 통역 교육의 핵심 가치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동시에 AI가 직무 수행 방식을 비롯한 여러 측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현실은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역량 모델을 재설계하고 이에 따른 역량을 배양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 모델은 전통적인 기본기를 중심축으로 하되 AI 리터러시와 기술 활용 능력을 내재화하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하위 역량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AI 시대 전문 통역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소수의 연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로서의 한계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하지만 AI 기술의 발전과 시장 동향에 발맞추어 통역교육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통역학의 기술적 전환기에서 통역 교육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논의된 역량을 배양하고 강화할 수 있는 AI 활용 교수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이어지기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박미정. (2023). 생성형 AI와 기계번역—챗GPT 번역을 통한 한일통역교육 고찰. *통번역학연구*, 27(3), 27-56.
- 배문정. (2023). 통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통역 모드 선호도 조사: 인간 통역, AI 통역, 자막 비교. *번역학연구*, 24(3), 591-614.
- 이주리에, 이주연, 이준호, 허지운. (2025). 통역사의 AI 활용 및 인식—국내 통역사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T&I Review*, 15(1), 7-39.
- 장애리. (2017). 국내 기계 통번역의 발전 현황 분석: 한 중 언어 쌍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2), 171-206.
- 장애리. (2021). 원격통역 시대에 필요한 통역능력에 대한 소고. *통역과 번역*, 23(1), 213-236.
- 장애리. (2025). AI 시대 인간 통역사의 강점 극대화를 위한 역량 탐색: 사론 최 통역 유튜브 동영상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6(3), 349-393.
- 진실희. (2024a). 생성형 AI 활용 통역 교육 사례연구—챗GPT를 활용한 비즈니스 통역 수업 설계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8(3), 187-214.
- 진실희. (2024b). 통역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챗GPT 프롬프트 설계: 제작과 편집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5(3), 123-150.
- 최문선. (2022). 기계와 협업하는 인간 통역—컴퓨터 보조 통역 (computer-assisted interpreting)의 최근 기술 동향. *통번역학연구*, 26(2), 133-163.

- 최문선. (2025). AI 시대의 통역 서비스 재편: 새로운 통역 유형론에 대한 시론. *번역학연구*, 26(2), 169-197.
- 최문선, 이주리에. (2024). 통번역 학습자를 위한 기술 교육 사례 연구. *통역과 번역*, 26(2), 179-213.
- Defrancq, B. (2023). Technology in interpreter education and training. A structured set of proposals. In G. Corpas Pastor & B. Defrancq (Eds.), *Interpreting technologies—Current and future trends* (pp. 6-26).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Fan, D. C. (2024). Conference interpreters' technology readiness and perception of digital technologies. *Interpreting*, 26(2), 178-200.
- Fantinuoli, C. (2022). Conference interpreting and new technology. In M. Albl-Mikasa & E. Tisellius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conference interpreting* (pp. 508-522). Routledge.
- Fantinuoli, C., & Prandi, B. (2018). Teach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 proposal for the interpreting classroom. *trans-kom*, 11(2), 162-182.
- Fantinuoli, C., & Prandi, B. (2021). *Towards the evaluation of automatic simultaneous speech translation from a communicative perspective*. arXiv. <https://doi.org/10.48550/arXiv.2103.08364>
- Jin, S., Lee, J. & Lee, J. (2024). What do interpreters expect of digital literacy training? A cas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Forum*, 22(2), 206-228.
- Lee, J., Jin, S., & Lee, J. (2024). How are conference interpreters using technology before, during, and after interpreting? An analysis of Korea's case. *T&I Review*, 14(1), 35-68.
- NAATI. (2025). Position statement on use of AI for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urposes. <https://www.naati.com.au/news/position-statement-ai/>
- Orlando, M., Liao, S. & Kruger, J. L. (2024).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echnologies and their impact on the industry. Macquarie University report for NAATI. <https://research-management.mq.edu.au/ws/portalfiles/portal>

/357248528/357055278.pdf

- Ortiz, L. E. S., & Cavallo, P. (2018). Computer-assisted interpreting tools (CAI) and options for automation with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Tradterm*, 32, 9-31.
- Pielmeier, H., Lommel, A. & Toon, A. (2024). Perceptions on automated interpreting: Results of a large-scale study of end-users, requestors, and providers of interpreting services and technology. Study conducted on behalf of the Interpreting SAFE-AI Task Force. North Chelmsford, MA: CSA Research. [https://www.inter-pret.ch/admin/data/files/infolib\\_asset/file/438/2024\\_pielmeier-et-el\\_perceptions-of-automated-interpreting\\_summary.pdf?lm=1728375248](https://www.inter-pret.ch/admin/data/files/infolib_asset/file/438/2024_pielmeier-et-el_perceptions-of-automated-interpreting_summary.pdf?lm=1728375248)
- Pöchhacker, F. (2024). Is machine interpreting interpreting? *Translation Spaces*, <https://doi.org/10.1075/ts.23028.poc>
- Prandi, B. (2023). *Computer-assisted simultaneous interpreting: A cognitive-experimental study on terminology* (Translation and Multilingual Natural Language Processing 22). Language Science Press.

## **Perspectives on interpreter education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views with interpreter trainers and graduate students specializing in English and Korean interpreting**

**Jeun Lee** (corresponding author, jieun.lee@ewha.ac.kr)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Hyoem Choi**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rapidly reshaping the field of interpreting, necessitating responsive adaptations in interpreter edu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interpreter trainers and graduate students perceive the impact of AI on the interpreting market and on interpreter training, drawing on 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seven interpreter trainers and six trainees. Trainers generally concurred that current AI tools, although advancing fast, remain inadequate to fully replace human interpreters due to limitations in quality. Nonetheless, they acknowledged that machine interpreting and speech translation are transforming market dynamics, repositioning interpreters as language consultants and providers of premium, high-quality services. Trainers stated that they utilized AI tools primarily for preparatory purposes—such as conducting background research, managing terminology, and generating draft translations—while emphasizing the continuing primacy of fundamental interpreting competence, professional ethics, and the irreplaceable “human edge.” Graduate students, for their part, primarily use AI to gain background knowledge and improving English expression, but considered it of limited value for interpreting practice due to translationese and frequent inaccuracies. Despite their shared apprehensions regarding AI-driven uncertainties, both trainers and trainees underscored the enduring strengths of human interpreters, including contextual awareness and rapport building, and called for stronger training in basic interpreting skills, more systematic language development, and broader opportunities for field placements. The findings offer insights for recalibrating interpreter education to address evolving professional demands in the AI era.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professional interpreter training; interpreter trainers; interpreting students; machine interpreting

**키워드:** 인공지능, 전문 통역 교육, 통역 교수자, 통역 학습자, 기계통역

이지은(1저자/교신저자, <https://orcid.org/0000-0002-6011-8786>)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jieun.lee@ewha.ac.kr](mailto:jieun.lee@ewha.ac.kr)

최효은(공동저자, <https://orcid.org/0000-0002-7195-0682>)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초빙교수

[hyoeun.choi@ewha.ac.kr](mailto:hyoeun.choi@ewha.ac.kr)

논문 투고일: 2025년 10월 20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11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12월 8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2월 16일